

2010년 7월 18일 섭리와 기성과의 차이점(100309)-이주인(교역자용)

2010년 3월 9일 새벽기도때 기성과 섭리의 차이점에 대해서 주님께 여쭙보았습니다. 막연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알려달라고 간구했을 때 주님께서는 열쳐녀 비유에 대해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후에 기성을 맞지 못한 다섯 처녀로 비유하시면서 풀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신부들에게 전하노라. 기성과 너희들은 성경속의 열쳐녀의 비유와 같이 나를 맞은 다섯 처녀와 나를 맞지 못한 다섯 처녀처럼 그 급이 다르다. 많은 날들을 준비하면서 신랑을 기다려야했던 열명의 처녀들이 있었다. 신랑 맞을 준비를 하는 처녀들은 모든 것을 갖추어야 되었었다. 한가지라도 부족함이 없었어야 했다. 즉, 열가지가 있다면 열가지를 다 갖추어야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었다. 한가지라도 빠진다면 진정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 없는 것이다. 신랑 또한 다 갖춘 신부를 찾기 위해서 신랑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며 애타는 마음과 설레는 마음으로 다급하게 처녀에게 달려오는 입장과 같았다. 그러나 열쳐녀 중 다섯 처녀는 못 갖춘 것이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가장 중요한 신랑에 대한 신부의 사랑을 못 갖춘 것이었다. 나는 진정한 신부를 원했으나 열쳐녀중 다섯 처녀는 사랑을 갖추지 못했었다. 기성은 이와같은 입장이다. 신랑을 맞이할 때 가장 중요한 사랑을 갖추지 못한 채 모든 것을 갖추었다며 착각하는 신부의 입장과 같다. 신랑이 원하는 수준의 신부의 사랑이 아닌 입술로는 사랑한다 하나 그 수준은 형제를 맞는듯이 혹은 아버지를 맞는 딸처럼 사랑의 수준이 낮고 낮아서 신랑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민망한 사랑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다 갖추었다며 스스로 교만에 빠져 있구나. 내가 속히 온다는 말조차 잊고서 시기와 질투로 온전히 신부 단장을 하며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 하려는 섭리의 신부들을 눈 흘기며 쳐다보는 꼴이 나에게는 한편으로 우습기도하고 한평으로 안타깝기도하고 실망스럽기도 하다. 2000년이라는 세월을 신부 단장 하라며 가르치고 길렀는데 그들은 모든 것을 목이 굼은자처럼 신부의 삶은 뒤로 한채 “나는 주의 종입니다.”라며 이 말의 뜻도 모른채 입술로만 낮아지는구나. 나는 가슴이 아프다.

너희 섭리의 신부들은 나를 진정 신랑으로 맞고 싶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그들은 시기질투하며 교만에 빠져 진정 신부단장을 하면서 나를 기다리는 섭리의 신부들을 핍박하고 있구나. 내 마음은 아프고도 슬프다. 나의 재림은 곧 속히인데 그들은 전혀 깨닫지를 못한 채 스스로에 대해 관대하며 적당하게 세상과 손을 잡고서 안일하게 살고 있구나. 신부의 사랑도 갖추지 못한채 시기질투로 온전한 신부 단장을 하는 다섯 처녀인 섭리를 핍박하고 눈을 흘기며 맞지 못하는 다섯 처녀인 자기들끼리도 분쟁을 일삼

아 나에게는 걱정거리로 전락했버렸다. 오히려 그들의 의가 나를 믿지 않는 이방인보다도 더 부족할까 걱정이다. 그들 스스로의 교만에 빠져 실족할까 걱정, 걱정이다. 이런 기성의 굼어버린 교만의 목을 누가 꺾을 수 있을까? 너희들이니라. 눈멀고 귀멀어서 스스로를 보지도 듣지도 못하는 그들을 너희들 섭리의 복음으로 신부단장을 시켜 놓아야한다. 기름을 준비해야 한다며 재촉하며 그들을 일깨워야한다. 내가 속히 곧 올 것임을 전하며 사랑과 말씀으로 신부 준비를 시키며 사랑으로 신부가 신랑을 맞이해야 된다 라고 너희들이 외쳐주어야 한다.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꼭 전해줘야한다.

선생은 나의 이 애타는 마음을 알기에 너희들을 온전한 나의 군대로 만들어서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게 만드는 기성의 뒤에 있는 사탄을 무찌르려 하는 것이다. 2000년 유대인 뒤에 있던 루시퍼가 지금 그들뒤에서 나를 핍박했듯이 선생과 너희를 핍박하고 있다. 그러니 먼저는 너희가 온전한 신부가 되어라. 그런후 나의 신부인 너희가 나와 하나 되어서 내 사랑으로 나의 완전한 사랑으로 사탄을 무찔러서 자고 있는 그들을 일깨워 신부 단장 시켜주길 바라노라. 나의 부탁이고 부탁이노라. 그러하기에 올 한해의 나와와 생명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너무도 중요한 한해가 되는 것이다. 선생은 이 모든 계획을 나와 착착 진행하고 있으나 너희들이 준비가 완전히 안되어 있고 성령의 불 또한 너무도 빨리 꺼져 안타까움으로 나와 선생은 너희들을 쳐다본다. 나와 선생의 육신이 되어주길 진정, 진정으로 바란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해서 아무것도 준비치 않고 신랑 오기를 아니, 신랑이 오는 것에 대해 관심조차없어하는 기성의 불쌍하고 미련한 어린 처녀들을 깨워다오. 부탁 또 부탁한다.

저는 주님께 주님, 저희들의 사명이 크고도 크나이다. 늘 우리를 핍박하고 주의 길을 막는 그들이 얕밟기만 했는데 이제는 저희들의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이때 주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하다 너희들의 어깨에 하나님의 소망, 성령님의 소망, 나의 소망이 걸려있다. 신부가 갖추어야할 기본적인 것조차 모른채 회회낙낙하며 교만과 시기 질투에 빠져 목이 굼은 바보 같은 기성의 어린 미련한 처녀들을 나와 선생과 하나 되어 너희들이 같이 구원의 역사를 꼭 해야되는 것이다. 너무도 중요한 한해이니 너희들부터 온전히 갖추고 준비해서 완전한 신부로서 그들을 일깨우자. 사랑하고 사랑한다. 나는 너희들의 신랑 예수 그리스도니라.